호남지역 기독교 여학교의 3.1운동*

– 수피아여학교, 기전여학교, 정명여학교를 중심으로 –

이 가 연**

– 목 차 –

Ⅰ. 머리말
Ⅱ. 기독교 여학교의 설립과 민족교육
Ⅲ. 3.1운동의 전개
Ⅳ. 3.1운동 이후 저항운동
Ⅴ. 맺음말

▌국문초록

호남지역 3.1운동에서 여성들은 군중동원, 태극기 제작, 격문과 선언서 인쇄 및 배포를 담당하고 시위 군중을 이끄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조직적 저항운동의 대표적인 집단이 광주 수피아여학교, 전주 기전여학교, 목포 정명여학교 학생들이었다. 본고는 수피아, 기전, 정명여학교 학생들이 3.1운동 과정에서 조직적 주체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을 학교의 설립과정과 교육이념, 민족의식의 성장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위 세 학교는 모두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설립한 기독교계 여학교이다. 선교사들은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학교를 설립했지만 근대적 공교육 시스템이 거의 없던 당시, 이들은 지역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 특히 여성들은 기독교계 학교를 통해 새로운 문물 ·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대 환경에 적응하려고 했다. 기독교계 학교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적 민주주의 교육과 자유 · 평등사상에 의한 자주적 교육활동 등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교육의 최대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근대의 시대정신, 국가의식, 민족의식을 배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3.1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이들의 저항은 3.1운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수피아여학교에서는 열세집, 반일회, 백청단 등의 조

---

* 본고는 2018년 8월 8일 사단법인 대한민국역사문화원 주최 제1회 한국여성독립운동사 발굴 학술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 보완한 것이다.
** 동아대학교 사학과 강사(diet43@hanmail.net)

직을 만들어 활동하는 한편 정명여학교 학생들은 1921년 목포만세사건을 일으켰다. 1929년 광주학생운동 과정에서도 수피아, 기전, 정명의 여학생들은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적극적으로 시위에 나섰다.

주제어 : 수피아여학교, 정명여학교, 기전여학교, 호남지역, 기독교, 3.1운동, 여성 독립운동가

Ⅰ. 머리말

한국 근대 민족운동사에서 호남지역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과 한말 의병 그리고 1910년대를 전후한 민족운동과 1929년 광주학생운동까지 여러 저항운동에서 호남지역이 차지하는 위상은 각별하다. 특히 이 지역은 한국 최대의 곡창지대이기에 일찍부터 일본인들이 진출하여 식민지 지배정책을 실행했던 곳이기도 하다. 식민자본이 곳곳에 침투하여 농업회사가 세워지고 회사를 중심으로 토지 침탈, 쌀 · 면화 등 생산물의 일본으로의 이출이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반일감정이 다른 지역보다 더 빠르게 고조될 수 있었을 것이다.

2019년 5월 현재, 국가보훈처 발표에 따르면 전체 여성독립유공자 434명 가운데 호남지역 여성독립운동가는 59명으로 13.59%를 차지하고 있다.[1]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59명의 호남지역 여성의 사례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친 그들의 활약상을 알 수 있다. 주요 활동을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부표] 참고).

첫째, 학생운동은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소녀회의 활동과 1921년 정명여학교 학생들의 만세시위로 나눌 수 있다. 1929년 나주역에서 일본인 학생이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기옥, 이금자, 이광춘 등의 댕

1) 2019년 5월 현재,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에서 확인되는 호남 출신 독립유공자 총 2,107명 가운데 여성은 59명으로 2.8%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의 43명, 2.1%보다는 높아졌지만 아직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발굴이 요망된다. 추서가 독립운동의 귀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가가 나서서 당시 생명을 무릅쓰고 희생한 분들을 발굴하여 그 노고를 인정하고 보듬어 주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머리를 잡아당기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서 광주학생운동은 시작되었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되었고 연일 학생들의 만세시위가 이어졌다. 그런데 이미 광주여고보에는 '소녀회'라는 비밀결사조직이 결성되어 장매성, 장경례, 남협협, 김귀선, 고순례, 박채희 등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광주학생운동이 발생하자 부상자를 보살피는 등 시위 학생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러나 광주학생운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직이 드러나 장매성 이하 모든 관련 학생들이 검거되었고, 「치안유지법」으로 장매성은 징역 2년, 나머지 10명의 여학생들은 징역1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어 옥고를 치렀다.[2] 한편 정명여학교 학생들은 1921년 워싱턴회의를 지지하기 위한 만세시위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16명이 구속되었다.

둘째,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사례 가운데 3.1운동이 25건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3.1운동은 재판기록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다른 운동계열보다 포상자가 많다. 그런데 지금까지 호남지역의 3.1운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현재 남아있는 3.1운동 관련 판결문의 수, 관련자들의 포상도 다른 지역보다 적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호남의 여성들이 3.1운동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호남지역 3.1운동은 크게 기독교계, 청년 학생층, 천도교계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기독교계의 활동이 두드러졌다.[4] 최근에는 여성들의 3.1운동 참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활발하지는 않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독교 여성독립운동가 연구는 조금씩 진보하였다. 다만, 대부분이 처음부터 '기독교인 여성'이라는 관점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일반 여성독립운동가들을 분석한 결과 80%가 기독교인이었다

2) 민진영, 「일제하 광주의 여학생 조직과 여성교육」, 『호남문화연구』44, 호남학연구원, 2009, 128쪽.
3) 현재 남겨진 판결문의 수량만으로 3.1운동의 규모를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운동의 확산 속도, 참가자 수, 투쟁 양상 등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호남지역 3.1운동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서, 과거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실패 및 강제병합 직전 남한대토벌작전 등으로 인해 지역 민족운동의 중심세력과 인물이 대부분 제거 당했기에 투쟁역량이 손실되어 3.1운동까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파악한 연구도 있다(이와 관련해서는 박찬승, 「전남지방의 3.1운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 『전남사학』9, 전남사학회(현 호남사학회), 1995, 390쪽과 박이준, 「전남지방 3.1운동의 성격」, 『국사관논총』96, 2001, 142쪽 참조).
4) 한규무, 「호남지역 3.1운동과 종교계: 선행연구 검토와 향후과제 제시를 중심으로」, 『역사학연구』73, 호남사학회, 2019. 호남지방 3.1운동의 구체적인 연구사는 한규무의 이 논문을 참고할 것.

는 관점에서의 연구이다.[5] 박용옥은 일찍부터 항일여성단체 지도층과 참여자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고, 학교나 교회를 통해 근대 지식을 접한 여성들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6] 그러나 현재 호남지역 여성들의 3.1운동 참여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다. 광주의 여학생 조직과 여성교육의 실태를 밝힌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3.1운동을 언급하고 있으나, 주로 근대 여성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7]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고에서는 호남지역의 대표적인 기독교계 여학교인 수피아여학교, 정명여학교, 기전여학교의 설립과정과 민족의식의 성장, 3.1운동 전개 과정, 3.1운동 이후의 저항운동을 구체적으로 살핌으로서 호남 여성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하겠다.[8]

Ⅱ. 기독교 여학교의 설립과 민족교육

1. 기독교의 전파와 여학교 설립

미국 남장로교(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는 1892년 7명의 선교사를 조선으로 파견하여 선교 활동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서울에서 시작했지만 1893년 이른바 '敎界禮讓'이라고 하는 선교지 분담 정책으로 주로 충남, 호남,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남장로교는 이 지역 거점 도시에 스테이션(Station)을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교회와 학교, 병원 등을 건설하여 지역 기독교의 형성과 발전은 물론 교육, 의료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한국 선교를 시작한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학교 교육에 적극 나선 것은 1901년 무렵이었다. 이들은 '불신자에게는 전도를, 그리고 신자에게는 교육을(Evangelize the heathen and educate the Christians)'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었다. 즉 기

5) 손은실, 「3.1운동과 개신교 : 선교사들의 공감적 선교와 여성독립운동가들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47, 장로회신학대 세계선교연구원, 2019, 296쪽.
6) 박용옥, 『한국 여성 근대화의 역사적 맥락』, 지식산업사, 2001, 247쪽.
7) 민진영, 「일제하 광주의 여학생 조직과 여성교육」, 『호남문화연구』44, 호남학연구원, 2009.
8) 이 외 남장로교가 호남지역에 설립한 여학교로는 군산 멜볼딘여학교과 순천 매산여학교가 있다. 매산여학교는 1919년 폐쇄된 상태였기에 3.1운동에 참여할 수 없었다(한규무, 「광주 · 전남 기독교인들의 3.1운동 참여와 동향」, 『한국기독교와 역사』13, 2000, 76쪽 참조).

독교 신자를 우선 확보하고, 그 후 신자를 중심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여겼다. 때문에 전도가 교육의 선결조건이었다.[9] 당시 전주스테이션 소속 선교사들은 교인이 점차 증가하자 학교 설립 여건이 성숙했다고 판단하여 학교 교육을 시작하기로 했다. 1901년 7월 선교사 해리슨(William B. Harrison, 하위렴)의 전주남학교(신흥학교)를 시작으로 1902년 전주여학교(기전여학교), 군산영명학교(1902)와 멜볼딘여학교(1902)가 잇달아 세워졌고, 목포 정명여학교(1902), 영흥학교(1903) 등이 뒤를 이었다. 전주와 군산 그리고 목포에 이어, 광주와 순천의 스테이션 안에도 예외 없이 숭일학교, 수피아여학교, 매산남녀학교가 설립되었다. 남장로교는 5개 스테이션 내 10개 학교에 전문 인력과 거액을 투입하여 학교를 운영해나갔다.

그 가운데서도 선교사들은 여성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893년 제1회 선교공의회에서는 여성들을 개종시키는 일과 기독교 신자인 소녀들을 교육하는데 특별히 힘쓸 것을 당부하고 있다.[10] 이는 여성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선교정책은 여성의 역할을 가정으로 한정시키는 것으로서, 당시 기독교회가 조선 여성을 보는 시선이 보수적이었음을 말해준다. 선교정책의 보수성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평등사상은 조선의 여성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통해 전근대의 유교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였다. 선교사들이 최종 목표로 했던 것이 진정한 여성 교육이 아니라 여성을 통한 온 가정의 전도에 있었다 하더라도, 기독교가 당시 여성의 삶의 공간을 집안에서 사회로 확장시키는데 일정부분 공헌 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호남지역의 남장로교 또한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는 여성에 대한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여성 교육을 적극 실시하였다.

기전여학교는 1902년 1월 전주에서 설립되었다. 최마테(Mattie S. Tate) 선교사가 소녀들 12명을 모아 자신의 집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기원이다.[11] 이후 1904년 윌리엄 전킨(William M. Junkin, 전위렴)의 아내 레이먼 전킨

9) 이재근, 「남장로교의 전주 신흥학교, 기전여학교 설립과 발전(1901-1937)」, 『한국기독교와 역사』 42,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15, 46쪽.
10) 곽안전, 『한국교회사』, 대한기독교서회, 1961, 68쪽.
11) 전주기전여자중학교, 『기전80년사』, 1982, 124쪽.

(Mary Leyburn Junkin)이 최마테로부터 정식으로 기전여학교 운영권을 인계받아 초대 교장을 맡았다.[12] 이때까지만 해도 전주여학교 또는 전주소녀학교로 불렸다. 1908년, 제2대 교장 랭킨(Cornelia [Nelie] Beckwith Rankin)이 부임한 후 '기전여학교'로 교명이 확정되었다.[13]

수피아여학교는 선교를 위해 광주 효천면 양림리에 터를 잡은 배유지(Bell Eugene) 목사의 사랑방에서 1907년 가을부터 4명의 어린이가 읽기, 쓰기, 셈하기, 성경공부를 하면서 시작되었다.[14]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자 1908년 봄, 본격적인 남녀 미션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광주남학교와 광주여학교가 개교하였다. 이후 남학교는 '숭일학교', 여학교는 '제니스피어(Jennie Speer)기념여학교'에서 '수피아여학교'로 발전하였다.[15]

정명여학교가 있던 목포는 1897년 개항된 곳으로 일찍부터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하였다. 이곳에서 1903년부터 선교사 스트래퍼(Miss Fredrica Elizabeth Straeffer)가 10여명의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 모아 가르친 것이 기원이다. 당시에는 목포여학교라 불렸다. 1911년, 유애나(Mrs. J. S. Nisbet, nee Anabel Lee Major) 교장이 부인한 후 6월 '정명여학교'로 개칭되었다.[16]

2. 민족교육과 민족의식의 성장

여학교의 설립과 학생 수의 증가는 여성의 의식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졸업생들이 증가하고 그들의 사회 활동이 시작되면서 의식화 경향은 더욱 두드러졌다. 여성들은 자신 및 국가가 처한 상황을 판단하는 힘과 문제를 해결할 행동력을 동시에 갖게 되었다. 기독교계 여학교는 '한국에 필요한 여성'과 '교회의 전도사업에 필요한 여성'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설정하였

12) 전주기전여자중학교, 앞의 책, 130쪽.
13) '기전(紀全)'은 학교 발전에 큰 도움을 준 전위렴(William M. Junkin) 목사를 기념한다는 뜻이다(전주기전여자중학교, 앞의 책, 134쪽).
14) 광주수피아여자중고등학교, 『수피아 100년사』, 2008, 181쪽.
15) '수피아'라는 교명은, 1911년 미국의 스턴스(M.L.Sterns) 여사가 세상을 떠난 동생 제니 수피아(Jennie Speer)를 기념하기 위하여 5,000불을 희사하여 그 기금으로 회색 벽돌로 된 3층 건물인 교사(Speer Hall)가 준공된다. 이때부터 교명을 수피아여학교(Jennie Speer Memorial School for Girls)라고 부르게 되었다(광주수피아여자중고등학교, 앞의 책, 196쪽).
16) 정명여자중고등학교, 『정명100년사』, 2003, 73~74쪽.

다.[17] 식민지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은 '한국에 필요한 여성'을 여성의 힘으로 식민지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러한 의식의 성장에는 교사의 영향이 매우 컸다.

수피아여학교 설립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인물과 교사는 서양 선교사 외 남궁혁, 김함나, 홍우종, 최흥종, 변창연, 최재익, 김마리아 등이 있다.[18] 최흥종은 북문안 교회에서 배유지 목사를 도와 시무하면서 학교 설립에 관계하였다. 1919년 3.1운동 때는 일부러 상경하여 3월 5일 대한문 앞 시위에서 독립을 고취하는 격문을 살포하고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피체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19] 이들 중 김마리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마리아는 1892년 6월 18일 황해도 장연군에서 태어났다. 큰언니는 수피아여학교 설립에 관계하고 교사로 재직했던 김함나이다. 김함나의 남편 남궁혁은 수피아의 자매학교 숭일학교 교사였는데, 3.1운동 당시 자택을 모의 장소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20] 독립운동가 김규식의 부인이자 1910년대부터 해방의 순간까지 독립운동을 했던 김순애, 해방 후 수피아의 첫 교장이 된 김필례 등이 김마리아의 고모였다. 1905년 서울로 간 김마리아는 노백린, 김규식, 이동휘, 이갑 등 애국지사들의 출입이 잦았던 삼촌 김필순의 집에서 공부를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민족의식을 성장시켜온 그는, 이화학당을 거쳐 1910년 연동여학교(지금 정신여자중학교)를 졸업한 뒤 3년 동안 수피아여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하였다.[21] 그는 교사로 근무한 3년 동안 수피아 학생들의 민족의식과 저항의식을 키워줬다. 3.1운동 때 수피아 학생들을 이끌고 만세시위의 전면에 섰던 박애순 교사는 1915년 1회 졸업생으로서 서울 정신여학교 사범과를 마치고 모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었다.[22] 수피아 학생들이 3.1운동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하고 이후 비밀결사조직을 결성하여 조직적으로 항일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김마리아, 김함나, 박애순 등과 같이 일찍부터 저항의식을 고취시켜 준 교사가 있었기에 가

17) 전주기전여자중학교, 앞의 책, 135쪽.
18) 광주수피아여자중고등학교, 앞의 책, 182쪽.
19) 「최흥종 판결문」, 경성지방법원, 1919.11.6.
20) 「김복현 외 21인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1919.6.16. 남궁혁은 증거 불충분으로 1919년 6월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 광주수피아여자중고등학교, 앞의 책, 189쪽.
22) 광주수피아여자중고등학교, 앞의 책, 205쪽.

능했다.

한편 1908년 사립학교령이 공포되고 1910년 병합 이후에 각 학교에는 일본어 교육이 강화되었으나 기전여학교의 한국인 교사 김한순과 김진상은 일인 교사의 눈을 피해 한국사와 해외 독립 투쟁을 몰래 가르쳐주면서 학생들의 민족의식을 성장시켰다. 김진상은 전주 3.13만세운동에 참가한 기전여학교 학생 김공순의 부친이다.[23] 또한 기전의 3.1운동을 주도한 임영신과 김인애를 비롯한 몇몇 학생들은 서문교회 김인전 목사를 자주 찾아 국제정세와 국내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애국심을 고취시켰다. 김인애의 오빠이기도 한 김인전 목사는 3.1운동 이후 1920년 2월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으로 활약하였으며 독립전쟁의 비용 조달을 목적으로 한국노병회를 결성한 독립운동가이다.[24] 평양 숭의여학교를 졸업한 박현숙은 기전여학교에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항일의식을 심어주었다. 1915년 기전으로 부임하기 직전 박현숙은 숭의여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항일비밀결사인 송죽결사대(松竹會)의 회원이 되어 지방조직에 착수하였다.[25] 박현숙은 기전에 부임하자마자 학생 5명(임영신, 오순애, 오자현, 송귀내, 유채룡)을 뽑았고 이들과 송죽회의 전주지부 격인 공주회(公州會)를 결성하였다. 공주회는 구국기도회를 비롯하여 설교를 통해 민족과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학습하였다. 서문교회 김인전 목사도 이 소식을 듣고 일주일에 두 시간 씩 한국사를 가르쳐 주었다.[26]

정명의 교사들 또한 민족주의 색채가 강한 시를 학생들에게 외우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족의식을 일찍부터 싹트게 하였다.[27] 4월 8일 목포의 만세시

---

23) 전주기전여자중학교, 앞의 책, 162쪽.

2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5) 송죽결사대는 1913년 숭의여학교 교사 황애스더(황애덕), 김경희, 이효덕 세 사람이 중심이 되어 조직하였다. 당시 숭의여학교에는 각 도 출신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들을 각 도의 대표로 하여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독립운동을 하기로 했다. 이에 1913년 박현숙, 김옥석, 최자혜, 서매물, 홍마태, 황신덕, 채광덕, 최의경, 박경애 등이 대원으로 규합되었다. 그리고 각 지방의 대표를 뽑았는데, 목포지방 대표로 최자혜, 박경애가 선발되었다. 송죽결사대원은 졸업 후 자기의 주거지역 또는 취업지역에서 활약하며 동지를 규합하고 조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박현숙은 졸업 후 기전여학교 교사로 부임하였고, 김경희는 초기 숭의여학교에 남아 활약했으나, 목포 정명여학교에 잠시 근무하였으며 최자혜 또한 목포 정명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학생들의 민족의식 성장에 양향을 미쳤다(숭의학원, 『숭의80년사』, 1983, 125~136쪽 참고.)

26) 전주기전여자중학교, 앞의 책, 171~172쪽.

27) 정명여자중고등학교, 앞의 책, 89쪽.

위를 이끈 최자혜는 숭의여학교 출신으로 기전의 박현숙과 마찬가지로 송죽결사대 회원이었다.[28] 같은 숭의여학교 출신의 김경희 교사 또한 송죽회 결성을 주도한 인물로서 1908년 숭의여학교를 졸업하고 3년간 모교에서 교편을 잡은 후 목포 정명여학교 교사로 부임하였다.[29] 김경희 교사가 주도하여 조직한 학생 모임 '총란회'는 총학생회의 성격을 띠었을 뿐만 아니라 20~30년대 독립운동의 주축 조직이 되기도 하였다.[30] 총란회는 여성문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등 굉장히 진보적인 조직으로 발전하였다.[31] 3.1운동 때 최전선에서 수피아여학교 학생들을 이끈 박애순 교사는 정명여학교 최초의 졸업생이었다.[32]

강제 병합 이전 설립된 기독교계 학교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적 민주주의 교육과 자유 · 평등사상에 입각한 자주적 교육활동 등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교육의 최대 목표로 설정하였다.[33] 이에 따라 학생들은 시대정신, 국가의식, 민족의식을 배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학교들과 관련된 외국인 선교사들이 직접적으로 3.1운동에 참가하여 역할을 했다는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34] 민족교육은 주로 한국인 교사들이 중심이 되었다.

---

28) 숭의학원, 앞의 책, 131쪽.
29) 독립기념관, 『월간 독립기념관』 2015.7, 18~19쪽.
30) 정명여자중고등학교, 앞의 책, 84쪽.
31) 『동아일보』 1928.6.21. 목포정명토론회.
32) 박애순은 제1회로 정명여학교를 졸업하고 수피아여학교로 진학하여 여기서도 1회 졸업생이 되었다(정명여자중고등학교, 앞의 책, 83쪽).
33) 차석기, 『한국민족주의 교육의 연구』, 진명문화사, 1976, 77~79쪽.
34) 정명여학교의 유애나 교장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태극기를 제작하고 있는 학생들을 만류하며 기숙사를 돌아다니다가 계단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는데, 이 일로 1년 후 사망하였다(정명여자중고등학교, 앞의 책, 97쪽). 또한 기전여학교의 콜튼 교장은 1915년 학교에 걸린 '천황'의 초상이 훼손된 사건이 발생하자 범인을 찾아내려 노력하였다(전주기전여자중학교, 앞의 책, 176~177쪽). 이는 일본인 교사들이 학교의 존폐문제를 걸고 교장을 위협했기 때문이었지만, 호남지역 기독교계 학교들의 선교사들이 직접 반일 발언이나 행동에 나서지 않은 것은 보수적 성향이 강한 미국 남장로교 계통의 학교였던 것이 크게 작동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주한 선교부에서는 현지의 정치적 문제에 관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어 선교사들의 개입이 힘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Ⅲ. 3.1운동의 전개

1. 3.10 광주 만세시위

1919년 3월 1일, 경성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의 기운이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있을 때, 당시 경성에 잠시 머물고 있던 나주의 김복현이 독립선언서 수 천 매와 '경고 우리 2천만 동포'라는 제목의 격문 약 100장, 병합의 불법성을 호소한 '선언서' 약 150장, 조선 독립을 노래하는 '독립가' 약 100장 및 국민대소집청원서 약 10장을 가지고 3월 6일 광주로 돌아왔다. 곧바로 광주 효천면 양림리의 김강과 논의하여 광주에서도 만세시위를 하기로 결정하고 송흥진, 서정희, 숭일학교 교사인 최병준, 수피아여학교 교사 박애순, 진신애 등 12명이 모여 거사를 계획하였다. 이들은 광주 시내 각 학교 학생 및 대중을 3월 10일 오후 3시 반, 광주 작은 시장에 모이도록 하고 김복현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독립만세를 외치며 광주 시내를 행진하기로 하였다. 군중 동원은 서정희가 맡았으며 숭일학교 학생들의 참가 권유와 인쇄물 배포는 최병준, 수피아 학생들은 박애순이 맡아서 참가 권유를 하기로 하였다.[35]

그러나 수피아 3.1운동의 움직임은 이보다 일찍 시작되고 있었다. 1919년 2월 중순, 김마리아(1910년경 수피아 교사 재직)가 수피아에 들러 당시 교사로 있던 언니 김함나에게 2.8독립선언서를 전해 주었다.[36] 또한 박애순 선생은 학생들의 독립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일신보』의 기사를 읽어주고 "만국강화회의에서 우리나라도 독립이 승인되었으므로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개시하고 있으니 우리도 운동을 개시하여 대한독립만세를 불러야 한다."고 설득하였다. 박애순으로부터 광주에서 독립운동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수피아의 학생들 가운데 기숙사 상급생인 홍순남, 박영자, 최경애, 양태원 등은 기숙사 지하실에서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몰래 태극기를 만들었다. 태극기의

---

35) 「박애순 외 76인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1919.4.30. 『독립운동사 제9권 학생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287~289쪽)와 『독립운동사 제3권 삼일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555~556쪽)에서는 이날 시위의 주동 인물로 수피아에서는 홍승애를 지목하고 있다. 홍승애는 수피아와 영락교회 학생 동원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36) 광주수피아여자중고등학교, 앞의 책, 248쪽.

재료가 없었기에 이들은 고종의 인산 날 입었던 치마를 뜯어 한 사람당 10개씩 만들었다.[37]

3월 10일 거사 날 아침, 박애순은 홍순남, 박영자에게 독립선언서 50부를 나눠주고 오후에 부동교에서 모일 것을 지시하였다. 이날 광주의 시위대는 광주교, 양림리 방면, 누문리 방면에서 출발하였다. 우선 김복현, 김강, 서정희 등이 광주교 아래 강가 모래밭에서 수백 명의 군중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독립운동의 개시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태극기를 흔들며 모래밭에서 언덕으로 올라와 작은 시장으로 출발하였다. 송홍진을 선두로 숭일학교 학생 수십 명과 박애순, 진신애를 중심으로 하는 수피아 학생 20여 명이 양림리에서 출발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지산면 쪽에서는 수백 명의 농민이 달려왔다. 오후 3시 반 쯤, 이들은 부동교 밑 작은 시장에 집합해 있던 김복현, 김강 등 및 일반 대중 수백 명과 합세하여 1천 명 이상의 큰 단체가 되었다. 이때 송홍진은 대한독립만세라 쓴 태극기를 들고 선두에 섰고 김복현, 김강, 서정희, 최병준 등이 군중을 이끌었다. 작은 시장에서 합세한 시위대는 서문통을 거쳐 우편국 앞에 이르러 왼쪽으로 꺾어 본정통으로 들어가 북문 밖에 도착하였다. 여기서 누문리 방면에서 온 농업학교 학생 및 군중들과 합세하여 우편국 부근까지 행진하였다.[38] 이렇게 모여 든 군중들에게 수피아 학생들은 태극기를 나누어 주었다. 시위행렬은 서문통을 지나 현 광주우체국 앞을 돌아 충장로 파출소, 금남로 구 법원에서 다시 우체국 앞에 이르렀다.[39] 시위행렬이 우체국 앞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무장 기마헌병대가 출동하여 주동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시위대는 자진해서 경찰서로 가겠다고 외치며 경찰서 앞마당으로 몰려가 독립만세를 부르짖었다. 이날 시위로 100여명이 체포되었고 그 중 80여명이 구속되었다.[40] 수피아 교사와 학생들 중에 16세 이상 23명은 구속 기소되었고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

37) 광주수피아여자중고등학교, 앞의 책, 250쪽.
38) 「박애순 외 76인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1919.4.30.
3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9권 : 학생독립운동사』, 1978, 289쪽.
40) 『매일신보』 1919.4.17. 光州騷擾公判, 피고가 팔십여명.

[표 1] 3월 10일 광주 수피아여학교 만세시위 주도 인물

	이름	나이	본적	신분	형량	훈격
1	朴愛順	23세	전남 목포	교사	징역1년6월	애족장(1990)
2	陣信愛	20세	전남 광양	교사	징역10월	애족장(1990)
3	洪順南	18세	경남 하동	학생	징역8월	대통령표창(2016)
4	朴永子(朴又末禮)	19세	전남 순천	학생	징역8월	대통령표창(2011)
5	林眞實	20세	전남 순천	학생	징역4월	대통령표창(2015)
6	朴聖淳	19세	전남 고흥	학생	징역4월	대통령표창(2016)
7	梁順喜	19세	전남 광주	학생	징역4월	대통령표창(2016)
8	金德順	18세	전남 광주	학생	징역4월	대통령표창(2008)
9	曺玉姬	20세	전남 곡성	학생	징역4월	대통령표창(2003)
10	河永子	18세	전남 장성	학생	징역4월	대통령표창(1996)
11	李泰玉	18세	전남 순천	학생	징역4월	대통령표창(2016)
12	金安淳	20세	전남 나주	수피아 출신 간호부	징역4월	대통령표창(2011)
13	崔敬愛	17세	전남 담양	학생	징역8월(집행유예 2년)	-
14	楊泰元	16세	경북 경주	학생	징역8월(집행유예 2년)	대통령표창(2019)
15	尹血女(尹亨淑)	20세	전남 광주	학생	징역4월(집행유예 2년)	건국포장(2004)
16	崔秀香(崔賢淑)	16세	전남 광주	학생	징역4월(집행유예 2년)	애족장(1990)
17	金弼浩	17세	전남 곡성	학생	징역4월(집행유예 2년)	-
18	高蓮紅	17세	제주	학생	징역4월(집행유예 2년)	대통령표창(2019)
19	金良順	17세	전남 장성	학생	징역4월(집행유예 2년)	-
20	李羅血	17세	-	학생	징역4월(집행유예 2년)	-
21	李奉錦	17세	전남 순천	학생	징역4월(집행유예 2년)	대통령표창(2019)
22	康華善	16세	평양	학생	징역4월(집행유예 2년)	대통령표창(2018)
23	洪承愛	18세	전남 광주	학생	무죄	대통령표창(2018)

* 출전: 「박애순 외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1919.4.30. ; 「독립유공자공적조서」,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 「범죄인명부(강화선, 이나혈, 최경애, 고연홍, 이봉금, 양태원)」, 국가기록원.

2. 3.13 전주 읍내 만세시위

1918년 3월 20일 기전여학교를 졸업하고 충남 천안군 양대리 양대학교에서 근무 중이던 임영신은 1919년 2월 27일, 함태영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았다. 함태영은 당시 교회 세력을 배경으로 3.1운동을 막후에서 주도하였으며 천도교계와의 연락, 독립선언서의 지방배포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임영신은 학교 내 공주회 활동과 함께 일찍부터 지역에서 항일단체를 만들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고 신앙이 투철했기에 임영신에게 독립선언서를 전달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임영신은 선언서를 지니고 전주 서문교회 이돈수 장로의 집으로 갔고 이돈수는 김인전 목사, 의사 신일

용 등과 만나 임영신이 가져온 독립선언서를 전달하였다. 김인전은 곧바로 기독교 계열 남학교인 신흥학교 출신의 최종삼, 김종곤 등과 만나 시위 준비를 하였다. 한편 전북도 내의 천교도에서도 박준승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을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었고 박태련도 풍남동에서 친척들과 함께 비밀리에 태극기를 등사하고 최종삼 등 기독교 측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기전여학교 학생들은 휴교령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모으는데 여념이 없었다. 졸업반이었던 김신희, 최금주, 송순이(송순희)는 후배들을 계속해서 포섭하였고 함의선, 김한순 교사는 위의 신흥학교 관계자, 서문교회 관계자들과 만나 13일의 시위 준비를 빈틈없이 하였다.[41]

거사일인 3월 13일 전주 장날이 되었다. 며칠 전부터 전주 시내에는 이날 만세시위가 일어난다는 말이 돌았기 때문에 헌병과 경찰은 삼엄한 경계망을 펴고 모여드는 장꾼들의 행동을 예민하게 주시하였다. 채소 가마니로 위장한 태극기는 남문 장터까지 무사히 운반되었다. 정오, 남문의 인경소리를 신호로 일제히 행동이 개시되었다. 천도교, 기독교인 및 신흥, 기전학교 남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150여명의 집단이 남문시장(남문 밖 시장)에서부터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부르기 시작했다. 기전 여학생들은 태극기를 장꾼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신흥학교와 전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 시장에서 시작된 시위행렬은 남문, 공립제2보통학교, 大和町을 지나 大正町 우편국 앞에서 헌병 경찰의 저지선에 부딪혔다. 일경은 시위대에게 공포탄을 쏘고 몇몇 주동자들을 검거하기 시작했다.

대열은 일시 해산되었으나 오후 3시경, 다시 군중들이 모였다. 남문시장에 100여명이 집합하여 만세를 부르며 本町쪽으로 행진하였다. 본정 우편국까지 이르는 동안 인원수는 계속 증가하여 500여명에 이르렀다. 이때 헌병과 소방대원 50여명이 소방도구를 가지고 대기하다가 군중들을 향하여 물을 끼얹으며 대열을 흐트러뜨리려 했다. 시위행렬은 골목으로 흩어지며 독립만세를 외쳤고 해가질 무렵 무차별 검속이 시작되었다. 경찰은 낮 시위 때 미리 빨간 잉크로 시위대의 옷에 표시하였는데 이 잉크가 묻은 사람은 모조리 검거하였다. 이날 시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임영신, 김공순, 김신희, 송순이, 최금주, 최

41) 전주기전여자중학교, 앞의 책, 185쪽.

애경, 최요한나, 정복수, 함연춘, 김인애(최기물)을 포함하여 30~40명의 기전여학교 학생이 검거되었다. 대대적인 검거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어둠을 틈타 다시 행동을 개시했다. 그날 밤 9시경, 기전여학교 학생 김순실, 김나현, 강정순 등이 섞인 시위대 230여명이 도청 앞에서 만세를 부르며 검거된 자들을 석방하라고 외치다가 또다시 검거되었다. 이날 만세운동으로 전주 읍내에서 검거된 인원은 무려 300여 명에 이르렀다.[42]

검거된 수 십 명의 기전여학교 학생 중 주동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석방되었고, 13명의 주동자는 12시쯤 임시 유치장을 나와 형무소에 정식 구속되었다. 이들은 밤샘 취조에 밥을 삼킬 수 없음을 간수에게 건의했지만 무시당했고 분함을 참지 못해 단식투쟁을 한 끝에 나흘 만에 사식을 차입할 수 있었다.[43] 검거된 지 10일 만에 13명 전원이 검찰에 송치되어 취조를 받다가 6월 10일, 보석이 허가되었고 6월 20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법정에서 모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44] 이에 불복한 검사측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45]

[표 2] 3월 13일 전주 기전여학교 만세시위 주도 인물

	이름	나이	본적	신분	훈격
1	金恭順	18세	전북 정읍	무직	대통령표창(1995)
2	崔堯漢羅	17세	전북 전주	학생	대통령표창(1999)
3	金羅賢	17세	전북 정읍	학생	대통령표창(2005)
4	崔氣物(金仁愛)	20세	충남 서천	학생	대통령표창(2009)
5	金信熙	21세	전북 전주	학생	대통령표창(2010)
6	咸然春	21세	전북 전주	학생	대통령표창(2010)
7	崔金洙	21세	전북 전주	학생	대통령표창(2018)
8	鄭福壽	17세	전북 전주	학생	대통령표창(2018)
9	崔愛敬	18세	평남 평양	학생	대통령표창(2018)
10	金淳實	17세	전북 정읍	학생	대통령표창(2018)
11	宋順怡	18세	전북 임실	학생	-
12	姜貞順	21세	전북 전주	무직	-
13	任永信	21세	전북 금산	무직	-

* 출전 : 「최기물 외 12인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1919.6.30. ; 「독립유공자공적조서」, 공훈전자사료관 ; 「범죄인명부(강정순, 최애경, 김순실, 정복수)」, 국가기록원.
** 김공순, 강정순, 임영신은 3.1운동 당시 무직이었으나 기전여학교 졸업생이었다.

4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3- 삼일운동사(하) 제8편 전라북도의 운동』, 1971, 496~499쪽.
43) 전주기전여자중학교, 앞의 책, 186~192쪽.
44) 「최기물 외 12인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1919.6.30.
45) 「최기물 외 11인 판결문」, 대구복심법원, 1919.9.3.

3. 4.8 목포 만세시위

4월 8일 목포의 만세운동은 정명여학교와 영흥학교, 인근 양동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전국적인 만세시위의 분위기가 목포에까지 전해질 무렵 인근 광주에서는 이미 3월 10일에 숭일학교, 수피아여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대대적인 만세시위가 벌어졌다. 이 시위는 인근 기독교 세력에 영향을 미쳐 주변 지역으로 만세시위의 확산을 가져왔다.[46] 목포의 만세시위는 광주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광주 수피아의 교사 김함나의 남편이자 숭일학교 교사인 남궁혁이 박상렬 등을 만나 만세시위를 권유하였고 오도근, 김영주 등 뜻있는 학생 청년들은 구체적인 운동방법 등을 의논하였다.[47]

목포의 만세시위는 4월 8일로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 일찍 3월 20일에 이미 시작되었다. 이날의 시위는 목포경찰서장과 군수가 간절히 설득하여 시위대를 해산시켰다.[48] 이때까지만 해도 준비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참여율이 낮아서 경찰서장이 쉽게 해산을 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삼엄한 경계 속에서 기독교인들과 청년들은 거사일을 4월 8일로 정하였다. 이미 거사 전날인 4월 7일 밤 목포 시내에 '불온문서'가 배포되었고 경찰은 8일 기독교도 집에 은닉되어 있던 수백 장의 태극기 및 경고문을 압수하고 배포자를 검거하였다.[49] 정명여학교에서도 이 소식을 들었지만 동요하지 않은 채 4월 8일의 시위를 준비하였다.

양동교회의 이경필 목사를 비롯 서기현 장로, 양경팔 장로, 서화일, 양병진, 양인식 집사 등과 정명의 1회 졸업생 최자혜, 이금전, 김진엽, 김보현 등이 서기현 장로의 집에 본부를 두고 거사를 준비하였다. 정명여학교의 학생 동원은 김진엽, 최자혜, 영흥학교 학생 동원은 영흥학교 졸업생인 양일석, 교인 동원은 이경필 목사가 각각 맡았다. 거사를 준비하는 동안 광주에서는 독립운동에 대한 목포지역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몇몇 인사들에게 '전조선청년독립

---

46) 박이준, 앞의 논문, 127쪽.
4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1971), 610~611쪽.
48) 『매일신보』 1919.3.25. 木浦, 간절히 설유하야.
49)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7冊 其7: 独立運動に関する件(第42報)』, 1919.4.9(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단' 명의의 독립선언서 사본, 2.8독립선언서 사본, 비밀지하신문 2부(「조선독립광주신문」 제1호, 「조선독립광주신문」 1919.3.11.자 각각 1부), 격문, 독립가 등의 인쇄물을 봉투에 넣어 은밀히 전해주었다. 그 중 하나가 정명여학교 7대 교장인 김아각(Daniel Cumming) 목사에게 전해졌다.[50] 특히 광주의 황상호가 만든 「조선독립광주신문」은 지역에서 만세운동을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51] 태극기는 당시 정명의 한문교사였던 곽우영이 그려준 원형을 학생들이 목판에 새겨 복사하고 양동교회와 몇몇 교인의 집에 옮겨 놓았다. 작업은 주로 기숙사와 지하실에서 진행되었다.

4월 8일, 영흥학교 학생 김옥남이 친 비상 종소리를 신호로 정명여학교와 영흥학교 학생 200여명과 양동교회 교인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선언서를 뿌리며 시가행진에 돌입하였다. 최자혜, 이금전, 김보현, 이은득, 강지성, 김영순, 이복점 등 정명여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지휘하였다. 학생들이 정문을 벗어나서 프렌치병원(현 양동제일교회) 앞을 지나 동화고무공장에 이르자 많은 시민들이 가세하였다. 이어 법원을 지나 산수정(현 유달동 인근)까지 시위행렬은 계속되었다. 순식간에 목포 시내는 술렁였다. 일본 경찰들도 신속하게 학생과 시민들을 검거하기 시작했다. 오전 10시쯤 시작한 정명여학교 학생들의 시위는 저녁 늦게까지 계속되었다.[52]

이날 체포된 교인과 학생은 200여명이 넘었으며 수용 한계를 초과하였기에 어린 학생들은 훈방조치하고 백여 명은 구속되었다. 정명에서는 최자혜를 비롯하여 다수의 교사,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기에 정상적인 학교 일정을 진행하지 못하여 임시휴교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1920년부터 1922년에는 고등과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 일로 구속된 정명의 교사와 학생들은 최자혜, 이금전, 김보현, 김마르다, 김정혜, 천귀례, 박겸숙, 김정현, 김옥실, 곽희주, 문복금, 김영애, 박복술(박정희), 김연순, 주윤애(주유금) 등이다.[53] 그러나 이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당시 정명여학교 학생들

---

50) 1983년 2월 16일 정명여중에서는 교실 개축공사를 위해 천정을 뜯던 중, '전조선청년독립단' 명의의 2.8독립선언서 등 9장의 갱지가 들어있는 서류 봉투가 발견되었다. 현재 독립기념관에서 보관중이다(『동아일보』 1983.2.17. 2.8독립선언서 목포서 발견 ; 정명여자중고등학교, 앞의 책, 96쪽 참조).

51) 박이준, 앞의 논문, 127쪽.

52) 『매일신보』 1919.4.12. 목포, 관헌이 출당 제지.

53) 정명여자중고등학교, 앞의 책, 97~100쪽.

과 교사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훈방 조치 된 것으로 생각된다.[54]

Ⅳ. 3.1운동 이후 저항운동

1. 열세집, 반일회, 그리고 백청단의 결성

광주의 3.1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던 수피아여학교 학생들은 이후에도 저항정신을 이어갔다. 첫째, '열세집'이라는 가극을 만들어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열세집'의 열셋은 조선의 13도를 말하고 집은 '우리나라'라는 뜻이었다. 이 가극은 각 도의 상징적인 노래와 함께 팔도강산을 춤으로 묘사한 것이다. 공연을 관람하던 관중들은 민족애가 솟구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55] 수피아여학교에서는 班日會라고 하여 특별한 날 반별로 학생들이 공연을 하는 모임이 있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일반적인 학예회 같았던 이 반일회는 '反日會'라는 숨은 뜻이 담겨 있어서 항일의 전통을 은유적으로 이어가는 행사이기도 했다.[56]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의 열기가 이어지고 있던 1930년 2월 경, 수피아의 몇몇 학생들은 학교 뒷산에 모여 조선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 백청단을 조직하였다. 백청단은 '白衣人', 즉 백의민족 청년들이라는 의미였다.[57] 이들은 은반지 속에 암호를 새겨 단원임을 표시하였으며 연락도 1대1

54) 1921년 12월 목포만세운동이 벌어졌을 때도 많은 정명의 여학생들이 검거되었다. 당시 신문기사에는 "곽희주, 문복금, 박정희, 김연순 등 5명은 대정8년(1919)에도 이러한 행동이 있었으나 관대한 처분으로 한 번 용서하였더니……"라는 내용이 나온다. 따라서 3.1운동 당시 검거된 정명 학생들은 취조 후 결국 처벌은 받지 않고 훈방조치 되었음을 알 수 있다(『매일신보』 1921.12.22. '정명여학생의 공판' 참조). 한편,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 삼일운동사(하)』, 1971, 612쪽에서는 1919년 3.1운동으로 '정신여학교(정명여학교의 오기)의 김봉원, 이겸양 두 교사가 검거되어 평남 강동경찰서로 압송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오류로 보인다. 이 두 교원이 검거된 것은 1920년 10월 3일이며, 이들의 검거를 항의하기 위해 정명여학교 학생 30여명이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기도 했다. 김봉원, 이겸양은 8일 방면되어 목포로 돌아왔는데, 왜 체포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매일신보』 1920.10.7. 목포 貞明女教員 2명 拘引 ; 『매일신보』 1920.10.8. 貞明校의 萬歲騷 ; 『매일신보』 1920.10.14. 貞明女教員 2명 무사 放還 참조).

55) 광주수피아여자중고등학교, 앞의 책, 260쪽.

56) 광주수피아여자중고등학교, 앞의 책, 261쪽.

로만 하였다. 입단 역시 전 단원이 일치하여 동의하는 사람이 아니면 입단시키지 않을 정도로 신중하였다.[58] 백청단은 조선 독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맹을 퇴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농촌의 문맹 퇴치에 힘썼다. 또 우수함에도 가난하여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였다. 운용 자금은 단원이 매월 30전씩 회비를 내었으며 적극적으로 기금을 모았다. 백청단은 3년 간 꾸준히 사업을 계속하였으나 단원들의 결혼과 취업, 유학 등으로 서로 연락이 힘들어지고 회비 증수도 곤란하여 1932년 7월 경 해소되었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단원 중 한 학생이 사상혐의로 가택 수색을 당할 때 일기장에서 발각되어 1933년 1월, 10여명의 회원이 검거되었고 그 중 7명은 보안법 위반으로 송치되었다.[59]

2. 1921년 목포만세사건(워싱턴회의 지지 만세운동)

1921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태평양지역 군비축소문제를 다루는 국제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국내외에서는 이 회의에 한국 독립 문제를 상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1919년처럼 다시 독립운동을 개시하고 여론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이 회의에 한국 대표를 참가시켜 조선인의 독립 희망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각국 전권위원에게 알림으로써 조선 독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목포는 정명여학교 학생들이 만세운동에 적극 동참하였다.

1921년 11월 13일 일요일 오후 4시경, 천귀례, 곽희주, 김정현(김나열), 박음전, 문복금, 김연순, 박복술, 주유금, 김옥실, 김귀남, 김정애, 김자현 등 12명은 정명여학교 기숙사에 다시 모였다. 이들 가운데 몇몇은 1919년 4월 3일 목포만세시위의 주동자들이었다. 천귀례는 평소 동아일보를 구독하고 있었는데, 워싱턴회의의 내용과 이 회의에 조선인 대표도 파견되어야 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그는 조선을 대표하는 인물이 회의에 참여하여 독립을 호소하는 일에 성원을 보내자고 권유하였다. 이에 찬동한 학생들은 각자 소지한 백지와 교정

57) 광주수피아여자중고등학교, 앞의 책, 257쪽.
58) 『중앙일보』 1933.2.3. 조선○○을 목적한 女性秘社白靑團.
59) 『동아일보』 1933.2.2. 조선○○을 목표로 白靑團 조직 활동.

의 대나무를 잘라 태극기를 만들었다. 다음날 14일, 오전 수업 종료 후 정오에 제작한 태극기를 손에 들고 정문을 나와 목포 남교동 방면으로 행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남순, 이다애, 김복선 등 수명의 학생이 거사를 보고 곧바로 태극기를 들고 뒤따랐다. 이들의 행동에 자극을 받아 김홍금 등 십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 뒷문으로 나와 시위대에 합세하였다.[60] 그러나 경찰들이 곧 출동하여 시위에 참여한 학생 모두를 체포하였다. 이날 시위는 이웃한 영흥학교 학생들을 자극해서 다음날 영흥학교 학생들도 만세시위에 참여하게 된다. 이틀간의 시위로 정명여학교에서는 16명이 구속되었다([표 3] 참고).

[표 3] 1921년 정명여학교 학생들의 목포만세사건 재판 결과

	이름	나이	형량	훈격
1	郭熙主	19세	징역10월	대통령표창(2012)
2	文福今	17세	징역10월	건국포장(1993)
3	朴貞喜朴福述	19세	징역10월	대통령표창(2012)
4	金蓮順	16세	징역10월	-
5	金慈賢	17세	징역10월	-
6	千貴禮	18세	징역6월	-
7	朴音田	15세	징역6월	대통령표창(2012)
8	金貞賢(金羅烈)	16세	징역6월	대통령표창(2012)
9	金玉實	17세	징역6월	대통령표창(2012)
10	朱有今	19세	징역6월	대통령표창(2012)
11	金貴南	21세	징역6월	대통령표창(1995)
12	李南順	18세	징역6월	대통령표창(2012)
13	金洪今	20세	징역6월(집행유예3년)	-
14	金貞愛	17세	징역6월(집행유예3년)	-
15	李多愛	18세	징역5월(집행유예2년)	-
16	金福善	17세	징역5월(집행유예2년)	-

* 출전 : 『매일신보』 1921.12.22. ; 『매일신보』 1921.12.26.

3. 광주학생운동과 각 학교의 시위

광주학생운동은 전국적인 규모의 저항운동이었기에 수피아여학교, 정명여학교, 기전여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운동에 나섰다. 위에서 본 수피아여학교의 '백청단'이 광주학생운동 과정에서 만들어진 비밀결사단체였으며, 정명에

60) 「천귀례 외 10인 판결문」, 대구복심법원, 1922.3.11.

서는 실제 시위를 계획하기도 했다. 1930년 2월 7일, 정명여학교 학생 최이순, 서금복, 박순덕, 강안식, 송영은 등은 학교 진입로 곳곳에 숨어 등교시간인 9시를 기다렸다. 이들은 광주학생운동으로 구속된 조선인 학생을 속히 석방하고 조선학생과 일본학생의 차별을 철폐할 것 등을 요구하기 위해 만세를 부르며 목포 시내 일원으로 행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명 학생들의 거사 계획을 사전에 입수한 경찰이 학생들을 모두 연행하였고 이 일로 학교는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61]

1930년 1월 광주학생운동과 관련하여 기전여학교에서도 만세시위가 있었다. 24일 아침 10시 반 경, 기전 학생 100여명은 미리 준비해 둔 태극기와 격문을 학교 부근에 뿌리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학교 뒷산으로 올라갔다. 결국 이날 시위로 40여명의 학생이 검거되었다.[62] 이 가운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곧 석방되었으나 주모자 6명은 결국 경찰 즉결로 최고 20일, 최하 15일의 구류 처분을 받고 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63] 2월 중순에서야 모두 출감했다.[64] 이 과정에서 학우들의 검거에 격분한 학생 70여명이 단식투쟁을 하기도 했다.[65] 이후 2월에 다시 삼례보통학교, 영신학교, 기전여학교 등 3개교가 학생운동을 계획하였지만 중도에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66] 광주학생운동은 전국의 거의 모든 조선인 학생들에게 자극을 준 일대 사건이었고 그 속에서 기전, 정명, 수피아의 학생들도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적극적으로 시위에 나섰다.

Ⅴ. 맺음말

호남지역의 대표적인 기독교계 여학교인 수피아, 정명, 기전여학교는 3.1운동, 광주학생운동 등 굵직한 항일운동에서 투철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시위

61) 정명여자중고등학교, 앞의 책, 124쪽.
62) 『동아일보』 1930.1.25. 전주 기전여학생 격문과 만세시위.
63) 『동아일보』 1930.1.28. 전주 기전, 신흥 등 양교 학생 취조.
64) 『동아일보』 1930.2.18. 기전女生 출감.
65) 『동아일보』 1930.1.29. 기전여학교 기숙사생 絶食.
66) 『동아일보』 1930.2.15. 전주 기전교 主謀혐의 검거.

를 이끌었다. 이들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했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의 항일운동을 이끈 리더로서 주체적으로 운동에 참여하였다. 인습의 벽을 허물고 자신의 손으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려는 적극적인 신여성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호남지역의 선교를 담당했던 미국 남장로교는 학교 교육을 통한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특히 여성교육에서 기독교의 근대성은 큰 힘을 발휘하였다. 여성들은 기독교계 학교를 통해 새로운 문물,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대 환경에 적응하려고 했다. 이러한 여성들의 민족의식 성장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발휘되었다.

마지막으로 여성독립운동가 발굴과 관련하여 제언을 하며 글을 마치려 한다. 2019년 5월 현재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15,511명, 그 중 여성은 434명으로 전체의 2.79%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67] 여성들은 독립운동을 입증할 만한 신문기사 또는 취조기록, 판결문이 거의 없고, 독립운동 단체에서 활동했어도 직함은커녕 이름도 없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이 남성 독립운동가의 그늘에서 어려움을 감내했기에 그러한 노력을 입증하기 어렵다. 물론 이러한 여성들의 희생과 노력을 과연 독립운동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18년부터 정부에서는 여성독립운동가 발굴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여성들에게 불리했던 심사요건을 완화하여 징역 3개월의 형량 기준에서 독립운동 사실 기준으로, 회고록, 자서전과 같은 2차 사료의 적극 인정, 이후 행적에 문제가 없다면 집행유예나 퇴학 처분으로도 포상이 가능하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쳐 135명의 여성독립운동가가 포상을 받을 수 있었다. 포상이 그분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최선의 방식은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예우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성독립운동가에 관심을 가지고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다. 아직도 많은 여성독립운동가들이 행적이 지워진 채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고 있다.

---

67)

구분	합계	건국훈장						건국 포장	대통령 표창
		소계	대한 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전체	15,511	10,965	30(5)	92(11)	821(35)	4,323(4)	5,699(12)	1,280(3)	3,266
여성	434	191	1(1)	1	10	39(1)	140(2)	49(1)	194

* 출전: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2019.5월 현재)
** ( )는 외국인

[부표] 호남지역 여성독립유공자(2019년 5월 기준, 가나다순)

번호	이름	운동계열	훈격	활동
1	강지성(康至誠)	3.1운동	대통령표창(2019)	-
2	고순례(高順禮)	학생운동	건국포장(1995)	소녀회, 광주학생운동
3	곽희주(郭喜主)	학생운동	대통령표창(2012)	정명여학교 1921년 만세시위
4	김공순(金恭順)	3.1운동	대통령표창(1995)	기전여학교
5	김귀남(金貴南)	학생운동	대통령표창(1995)	정명여학교 1921년 만세시위
6	김귀선(金貴先)	학생운동	건국포장(1993)	소녀회, 광주학생운동
7	김나열(金羅烈)	학생운동	대통령표창(2012)	정명여학교 1921년 만세시위
8	김나현(金羅賢)	3.1운동	대통령표창(2005)	기전여학교
9	김덕세(金德世)	미주방면	대통령표창(2014)	-
10	김덕순(金德順)	3.1운동	대통령표창(2008)	수피아여학교
11	김순실(金淳實)	3.1운동	대통령표창(2018)	기전여학교
12	김신희(金信熙)	3.1운동	대통령표창(2010)	기전여학교
13	김안순(金安淳)	3.1운동	대통령표창(2011)	수피아여학교
14	김옥실(金玉實)	학생운동	대통령표창(2012)	정명여학교 1921년 만세시위
15	김화순(金華順)	3.1운동	대통령표창(2016)	3.10광주시위
16	남윤희(南潤姬)	학생운동	대통령표창(2019)	-
17	남협협(南俠俠)	학생운동	건국포장(2013)	소녀회
18	문복금(文卜今)	학생운동	건국포장(1993)	정명여학교 1921년 만세시위
19	박계남(朴繼男)	학생운동	건국포장(1993)	광주학생운동
20	박계월(朴桂月)	학생운동	대통령표창(2019)	-
21	박복술(朴福述)	학생운동	대통령표창(2012)	정명여학교 1921년 만세시위
22	박성순(朴聖淳)	3.1운동	대통령표창(2016)	수피아여학교
23	박애순(朴愛順)	3.1운동	애족장(1990)	수피아여학교
24	박옥련(朴玉連)	학생운동	애족장(1990)	광주학생운동(소녀회)
25	박우말례(朴又末禮)	3.1운동	대통령표창(2011)	수피아여학교
26	박음전(朴陰田)	학생운동	대통령표창(2012)	정명여학교 1921년 만세시위
27	박채희(朴采熙)	학생운동	건국포장(2013)	소녀회, 광주학생운동
28	박현숙(朴賢淑)	학생운동	애족장(1990)	광주학생운동
29	신애숙(申愛淑)	학생운동	대통령표창(2019)	-
30	신정완(申貞婉)	임시정부	애국장(1990)	-
31	심상순(沈相順)	학생운동	대통령표창(2019)	-
32	양방매(梁芳梅)	의병	건국포장(2005)	-
33	양순희(梁順喜)	3.1운동	대통령표창(2016)	수피아여학교
34	윤오례(尹五禮)	학생운동	대통령표창(2018)	광주학생운동
35	윤형숙(尹亨淑)	3.1운동	건국포장(2004)	수피아여학교
36	이광춘(李光春)	학생운동	건국포장(1996)	광주학생운동
37	이남순(李南順)	학생운동	대통령표창(2012)	정명여학교 1921년 만세시위
38	이봉금(李奉錦)	3.1운동	대통령표창(2019)	수피아여학교
39	이순(李順)	학생운동	대통령표창(2019)	광주학생운동
40	이태옥(李泰玉)	3.1운동	대통령표창(2016)	수피아여학교
41	임소녀(林少女)	광복군	애족장(1990)	-
42	임진실(林眞實)	3.1운동	대통령표창(2015)	수피아여학교
43	장경례(張慶禮)	학생운동	애족장(1990)	소녀회, 광주학생운동
44	장매성(張梅性)	학생운동	애족장(1990)	소녀회, 광주학생운동

45	전어진(全於眞)	학생운동	대통령표창(2019)	-
46	정복수(鄭福壽)	3.1운동	대통령표창(2018)	기전여학교
47	조아라(曺亞羅)	국내항일	건국포장(2018)	수피아여학교
48	조옥희(曺玉姬)	3.1운동	대통령표창(2003)	수피아여학교
49	주말순(朱末順)	학생운동	대통령표창(2019)	소녀회, 광주학생운동
50	주유금(朱有今)	학생운동	대통령표창(2012)	정명여학교 1921년 만세시위
51	진신애(陳信愛)	3.1운동	애족장(1990)	수피아여학교
52	최금수(崔金洙)	3.1운동	대통령표창(2018)	기전여학교
53	최수향(崔秀香)	3.1운동	애족장(1990)	수피아여학교
54	최요한나(崔堯漢羅)	3.1운동	대통령표창(1999)	기전여학교
55	최혜순(崔惠淳)	임시정부	애족장(2010)	-
56	하영자(河永子)	3.1운동	대통령표창(1996)	수피아여학교
57	한보심(韓寶心)	학생운동	대통령표창(2019)	광주학생운동
58	함연춘(咸鍊春)	3.1운동	대통령표창(2010)	기전여학교
59	홍승애(洪承愛)	3.1운동	대통령표창(2018)	수피아여학교

* 출전 :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논 문 투 고 일 2019년 5월 30일
논 문 심 사 일 2019년 6월 12일
논문심사완료일 2019년 7월 18일

참고문헌

『매일신보』『중앙일보』『동아일보』
「김복현 외 21인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1919.6.16.
「박애순 외 76인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1919.4.30.
「천귀례 외 10인 판결문」, 대구복심법원, 1922.3.11.
「최기물 외 12인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1919.6.30.
「최기물 외 11인 판결문」, 대구복심법원, 1919.9.3.
「최흥종 판결문」, 경성지방법원, 1919.11.6.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7冊 其7』, 1919.4.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범죄인명부(강화선, 이나혈, 최경애, 고연홍, 이봉금, 양태원, 강정순, 최애경, 김순실, 정복수)」, 국가기록원.
「독립유공자공적조서」 및 「독립유공자공훈록」, 국가보훈처공훈전자사료관 (http://e-gonghun.mpva.go.kr/user/index.do).

곽안전, 『한국교회사』, 대한기독교서회, 1961.
광주수피아여자중고등학교, 『수피아 100년사』, 2008.
김진호 · 박이준 · 박철규, 『국내 3.1운동Ⅱ-남부』(한국독립운동의 역사2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독립기념관, 『월간 독립기념관』 2015. 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9권 : 학생독립운동사』, 197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3- 삼일운동사(하) 제8편 전라북도의 운동』, 1971.
민진영, 「일제하 광주의 여학생 조직과 여성교육」, 『호남문화연구』44, 호남학연구원, 2009.
박용옥, 『(한국독립운동의 역사31) 여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박용옥, 『한국 여성 근대화의 역사적 맥락』, 지식산업사, 2001.
박의경, 「한국 여성의 근대화와 기독교의 영향」, 『한국정치외교사논총』25,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3
박이준, 「전남지방 3.1운동의 성격」, 『국사관논총』96, 국사편찬위원회, 2001.
박찬승, 「전남지방의 3.1운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 『전남사학』9, 전남사학회(현 호남사학회), 1995.

손은실, 「3.1운동과 개신교 : 선교사들의 공감적 선교와 여성독립운동가들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47, 장로회신학대 세계선교연구원, 2019.
숭의학원, 『숭의80년사』, 1983.
이재근, 「남장로교의 전주 신흥학교, 기전여학교 설립과 발전(1901-1937)」, 『한국기독교와 역사』42,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15.
전주기전여자중학교, 『기전80년사』, 1982.
정명여자중고등학교, 『정명100년사』, 2003.
차석기, 『한국민족주의 교육의 연구』, 진명문화사, 1976.
한규무, 「광주 · 전남 기독교인들의 3.1운동 참여와 동향」, 『한국기독교와 역사』13, 2000.
한규무, 「호남지역 3.1운동과 종교계: 선행연구 검토와 향후과제 제시를 중심으로」, 『역사학연구』73, 호남사학회, 2019.

Abstract

3.1 Independence Movement of Girls' Mission School in Honam Region
– Focusing on Supia Girls' School, Jeongmyoung Girls' School, Kijeon Girls' School –

Lee, Ga-Yeon

3.1 Independence Movement in the Honam region, women played a leading role in mobilizing crowds, making the Taegeukgi, printing and distributing of declarations. The representative groups of these organized resistance movements were students from Gwangju Supia Girls' School, Jeonju Kijeon Girls' School and Mokpo Jeongmyoung Girls' School. These were missionary school. At that time, women accepted new cultures and ideas through Christian mission schools, and tried to adapt themselves to the new spirit of the times. Mission schools, basically, engaged in Christian democracy education and independent educational activities based on the idea of freedom and equality. And training of talent to serve the nation and society was set as the primary goal of education. As a result, students were able to cultivate the spirit of the times, the sense of the nation and nationality. Based on the national consciousness, the students actively started the 3.1 Independence Movement.

1919.3.10, 23 teachers and students from the Supia Girls' School were arrested and 3.13, 13 students from Kijeon Girls' School were arrested. 4.8, in Mokpo, a number of students and teachers from the Jeongmyoung Girls' School were arrested. Their resistance movement did not end 3.1 Independence Movement. After that, Students at Supia Girls' School, formed organizations such as Yeolsejip, Banilhae and Baekcheongdan. Students at Jeongmyoung Girls' School, in 1921, caused the Mokpo Manse

Incident. They took over the spirit of the 3.1 Independence Movement, they took to the streets in protest, at the 1929 Gwangju Student Movement.

Key Word : Supia Girls' School, Jeongmyoung Girls' School, Kijeon Girls' School, Christianity, 3.1 Independence Movement, Women's movement